

`boost::serialization`을 사용하여 객체를 `serialization` 한다.

객체를 직렬화 한 후,
헤더(stream의 길이, 타입) + 데이터(stream)를 보낸다.

기본적으로 서버는 클라이언트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과 게임 중인 사용자가 맞는지 체크만 할 뿐,
그 외는 클라이언트 내에서 다 해결한다. (ex) 놓을 수 없는 돌 위치, 게임 결과 집계 등등.

0. header

<사용되는 객체는 이렇다.>

1. 초기 화면에서 Mode 설정 시.
2. 1에 대한 서버의 response.
3. 게임 진행 정보.
4. 3에 대한 서버의 response.



Packet typ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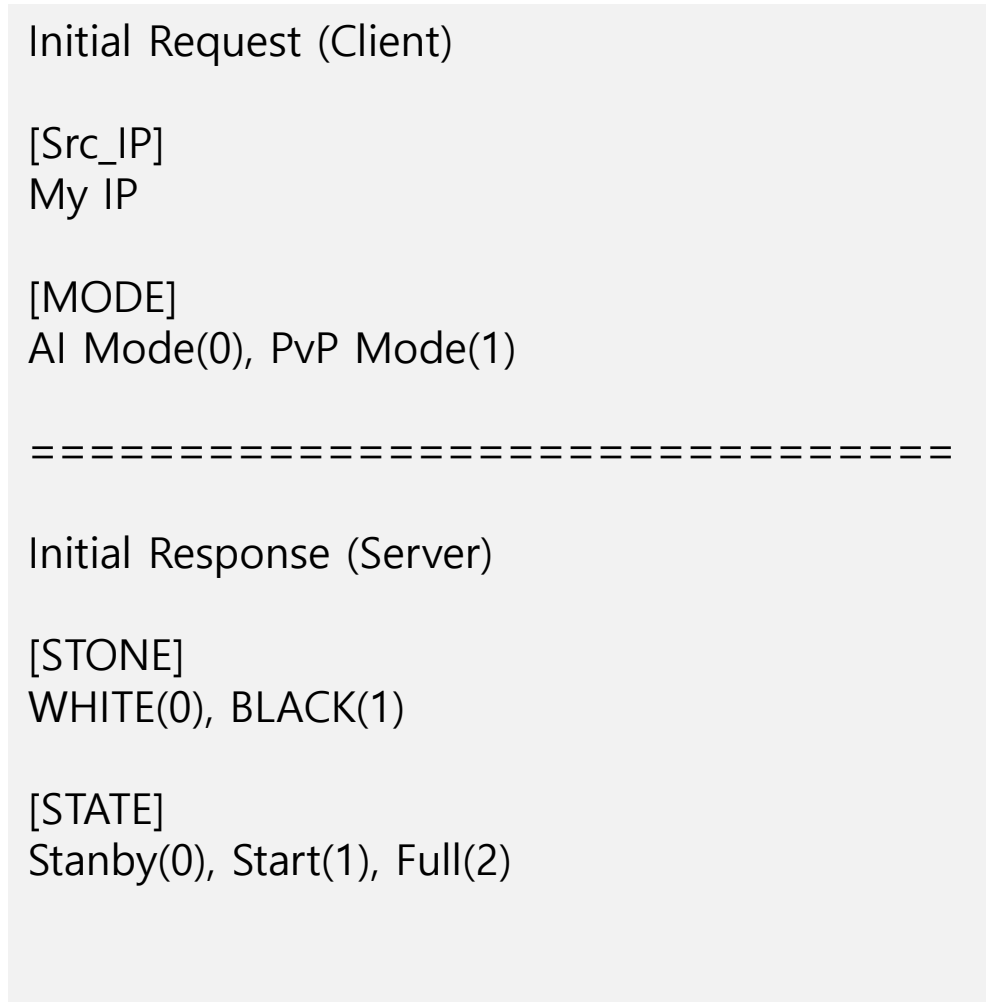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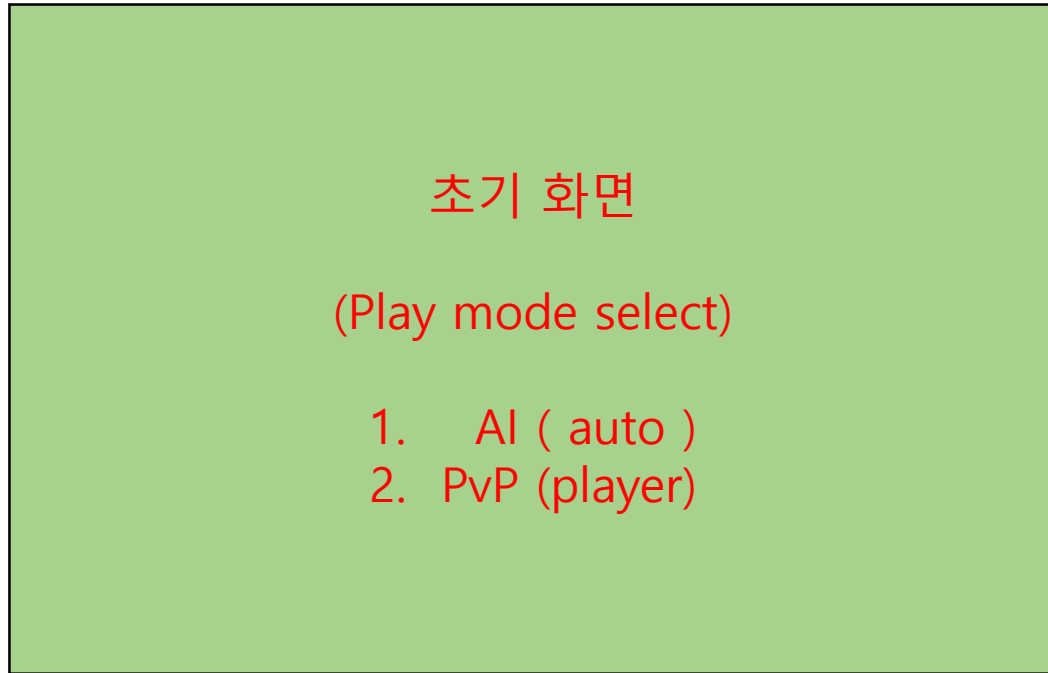
모드 선택 인가?

게임 중 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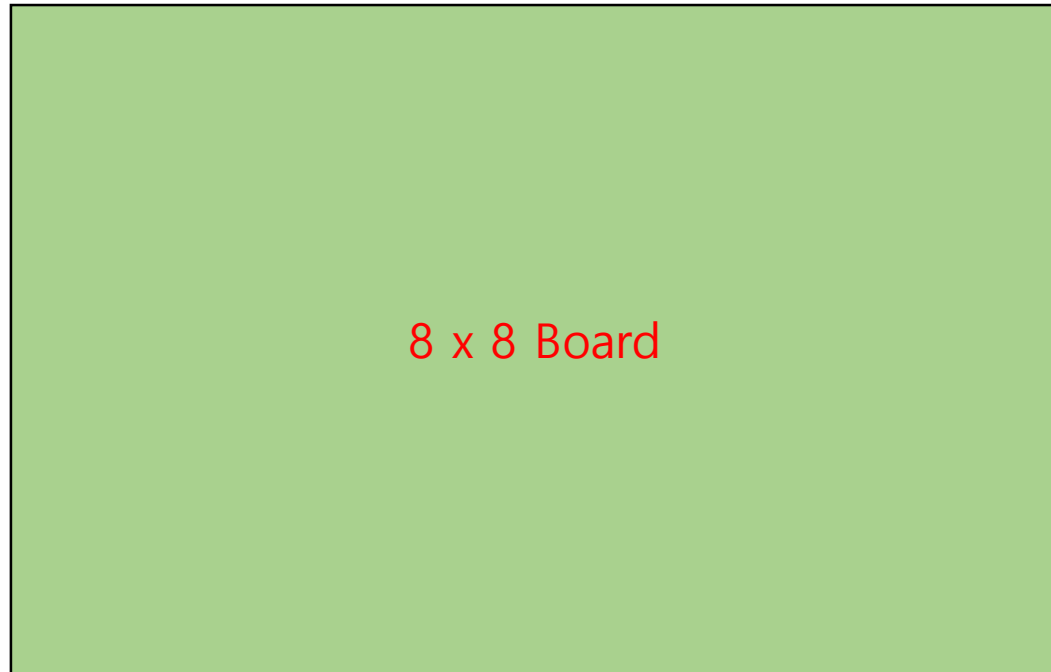
Data length;

Serialization 된 객체

초기



게임 진행 중



Game Request (Client)

[Src_IP]
My IP

[STONE]
My Stone Color

[MOVE]
돌이 놓아지면? 1
놓을 곳이 더 이상 없다면? 2

[LOCATION]
(x, y)

[RESULT]
Win(0), draw(1)

[SCORE]
집계된 스코어

=====

Game Response (Server)

[MOVE]
상대방의 돌이 놓아졌다면? 1
상대방의 돌이 놓아지지 않았다면? 2

[LOCATION]
(x, y) 상대방이 놓은 위치.

[RESULT]
Win(0), draw(1) 상대방에게 알림.

[SCORE]
집계된 스코어

[DISCONN]
상대방의 연결이 끊겼을 경우(1)